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7.10.18.(수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물류산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유인, 사무관 류경진, 주무관 남계원 • ☎ (044) 201-4018, 4019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‘文정부, ... 화물연대 파업대비 컨테이너 또 구매’ 보도 관련

□ 군위탁컨테이너 화물자동차는 국내화물 수송의 대부분*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화물운송의 마비로 인한 국가 물류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,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.

* 국내화물 수송실적: 도로 91.4%, 철도 2.2%, 해운 6.4%, 항공 0.1% ('13년)

○ 특히, '08년, '12년, '16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에는 수출·입 관련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총 24일 동안, 총 1.5만 TEU를 수송하였고, 무역협회 추정 약 7,883억 원의 피해를 감소시켰습니다.

* '09년 화물연대의 부분적인 운송거부 시에도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음

□ 코레일은 군위탁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, 자동차세·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, 국방부는 관리자로서 차량의 정비·운행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1일 1회 일상점검 및 월 1회 정밀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 시 차량 정비를 실시 중이며, 운전자 보수교육도 연 2회 실시 중

□ 현재, 정부는 내용연수(트랙터 16년)를 초과한 차량*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여 국가 물류위기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합니다.

* 노후차량 교체비 총 6억 원: '99년산 트랙터 5대 × 1.2억 원

< 관련 보도내용 (헤럴드경제), 10.18. >

◆ 文정부, ... 화물연대 파업대비 컨테이너 또 구매

- 컨테이너 트럭을 다시 구매, 문재인 정부 오히려 노동자의 파업권 침해
- 사용횟수 3차례 불과, 컨테이너 트럭 100대 소홀하게 관리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류경진사무관(☎ 044-201-40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